

##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의 '정조관념'

박 종 홍\*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정조관념 거부와 토대의 이탈 |
| II. 정조관념 옹호와 이중 척도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신여성'이란 말은 1910년대부터 조금씩 쓰이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에 들어 오면 대중적으로 친숙한 단어가 된다. 신여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근대적 교육의 수혜 여부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었지만, 투철한 사회의식의 소유 유무 여부를 가지고도 참된 신여성의 조건을 삼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1920년대 중·후반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단발과 양장으로 대표되는 서구적 외양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신여성 혹은 '모던 걸'이라고 불리었다.<sup>1)</sup>

그런데 수적으로는 매우 적었지만 가장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여자 유학생 집단이었다. 특히 그들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 석사논문, 1999, 22쪽.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유학생의 경우 1915년 동경여자친목회라는 이름의 대표 단체적 모임을 발족한 이후 1917년 『여자계』라는 잡지를 만들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들은 귀국해서 일본에서 배워 온 근대적 학문과 사상을 널리 보급하는데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자신들이 배웠던 신사상을 과감하게 실험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특히 신여성들에게 인습적 정조관념에 대한 거부는 그들의 정체성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김원주는 “만일 애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하면 동시에 정조관념도 엷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조관념은 연애의식과 갖치 고정한 거시 안이오 유동하는 관념으로 항상 새로울 것입니다”<sup>2)</sup>라고 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조관념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조관념의 거부는 신여성들이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세상의 비난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정당화의 과정이고,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유연애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당시 선각자 신여성들은 가부장제적 억압이 바로 여성의 정조관념에 집약되어 있다고 여겨 그것에 저항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성 작가들이 바라보는 신여성의 정조관념과 남성 작가들에게 바라보이는 신여성의 정조관념은 다를 수 있으며, 남성 작가들 및 여성 작가들의 인식 내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여성의 정조관념이 근대소설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남녀 작가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수 남녀 작가의 작품을 대비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어떤 성별의 작가나 어떤 개별 작가의 작품만을 다룰 때에 일방적 인식을 전체적 인식으로 오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유학생 출신 제1세대 신여성 작가인 김명순, 나혜석 및 그들 작가를 자신들의 작품에 모델로 삼았던 남성 작가인 김동인과 염상섭의 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 남녀 작가들이 신여성의 정조관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어떠한가를 대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이런 작업을 통해 이들 남녀 작가의 정조관념에 대한 인식이 어떤 위상에 놓여 있으며,

2) 김원주, <우리의 이상>, 『부녀지광』, 1924.8. 10쪽.

3) 1세대 여성 작가의 한 사람인 김원주의 소설과 그녀를 모델로 삼은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동아일보』, 1923.8.27-1924.2.5)에 대한 대비적 검토는 다른 논문에서 시도해 볼 것이다.

그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을 더욱 명료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신여성의 여성의를 검토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로는, 김동인과 염상섭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신여성의 욕망을 대비적으로 살펴본 것,<sup>4)</sup> 제1세대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 신여성의 '정욕'과 '모성'을 근대성과 연관시킨 것,<sup>5)</sup> 김동인의 <김연실전>과 나혜석의 <현숙>에서 사랑의 역전 양상을 다룬 것이 있다.<sup>6)</sup> 그러나 본고에서처럼 신여성의 정조관념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이 된 여성 작가와 그녀들을 모델로 삼은 남성 작가의 작품을 대비하여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 II. 정조관념 옹호와 이중 척도

### 1.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김연실전>: 무지의 맹목

<약한 자의 슬픔>(『창조』 1호-2호, 1919.2-3)에서 신여성 주인공인 '강엘리자베트'는 정신적 사랑을 동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적 사랑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학교를 오가며 마주치는 남학생 '이환'에 대한 정신적 사랑은 그녀의 머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관념적 추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녀의 독백으로 표출되는 실천력이 결여된 공상의 연속일 뿐이며, 그의 그녀에 대한 반응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K남작'과의 육체적 사랑은 구체적인 실체를 지닌 것으로 그녀의 본능적 욕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남작의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으로 남작의 요구를 깨달았다. 하고 겨우 중얼거렸다--

- 
- 4) 김양선, 「'신여성' 드러내기의 두 가지 방식」, 『한국여성문학비평론』, 안숙원 외, 개문사, 1995.  
 5) 최혜실, 「신여성의 고백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12.  
 6) 안숙원,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6.

「부인이 알시면?」

「아차!」

그는 속으로 고향을 쳤다.

「부인이 모르면 어쩌한단 말인가?……모르면……이것이 허락의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너는 그것을 싫어하느냐? 물론 싫어하지. 무엇? 싫어해? 네 마음속에 허락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나? 아……허락하면 어쩌냐? 그래도……」

일순간에 그의 머리에 이와 같은 생각이 전광과 같이 지나갔다.……중략……

엘리자베트는 갑자기 방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았다--남작이 불을 끈 것이다. 그 후에는 남작의 의복 벗는 소리만 났다.--엘리자베트는 정신이 아득하여지고 말았다.<sup>7)</sup>

인용문에서처럼 강엘리자베트는 밤중에 자신을 찾아 온 K남작의 정조 요구를 은근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뒤에도 그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를 거부하지 못한 자신의 약함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듯하면서도, 그가 돌아간 뒤에 매우 쓸쓸해하고 있으며 그가 오지 않으면 속이 타고 질투까지 하고 있다. 그녀에게 그와의 불륜관계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규범적인 정조관념이 아니라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점일 뿐이다. 더욱이 그녀는 그의 아내가 죽은 뒤에 정식 부인이 되어 '사교계의 꽃'으로 활동하는 일을 상상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녀에게 정조 상실의 죄책감을 찾아 볼 수는 없다.

강엘리자베트는 당시 지식인 남녀들의 자유연애가 정신적 사랑을 중시하고 있음과 달리 남자와의 육체적 접촉에서 은근히 쾌락을 느낀다. 이에 양진오는 “작가는 엘리자베트의 육체를 정조관념이 지배하는 육체가 아니라 성적 욕망이 은밀하게 요동하는 육체로 묘사”<sup>8)</sup>한다며 여성의 성적 욕망이 뚜렷이 포착되고 있음을 중시한다. 여성 주인공의 육체가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근대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여성의 정조관념 박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약화된다.

7) <약한 자의 슬픔>, 『김동인전집5』, 삼중당, 1976, 13쪽.

8) 양진오, 「<약한 자의 슬픔>의 다시 읽기」, 『문학사와 비평』 8호, 문학사와 비평학회, 2001.2, 162쪽.

<김연실전>(『문장』 2집, 1939.3)의 신여성 주인공인 '김연실' 역시 강엘리자베트처럼 정조관념이 박약하다. 그녀는 일본 유학을 떠나고자 친구의 오빠에게 일본어를 배우다가 정조를 상실하는데, 그 일에 대한 자각적인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성에 대한 그녀의 무지 때문이란 것이다. 그리고 동경에서 신여성 선배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유연애의 열렬한 주창자로 활동할 때에도 무지로 인해 맹목적인 성개방을 실천하고 있다.

그날 저녁 연실이는 창수의 방에서 묵었다. 그 하숙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역시 연실이는 적극적으로 창수는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교의 전차가 끊어졌음을 핑계로 연실이는 거기서 밤을 지내기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묵겠다는 말은 차마 하기가 힘들었지만, 선각자는 경우에 의지하여서는 온갖 체면이며 예의 등 인습의 산물은 희생하여야 한다는 신념 아래서,

「아이, 전차가 끊어져서 어쩌나? 선생님 안 쓰는 이부자리 없으세요?」

하고 말을 던져서, 요행 여름철이라 안 쓰는 두터운 이부자리를 얻어서 육조 방에 두 자리를 편 것이었다.

자리에 들어서도, 인생 문제며 문학의 존귀성을 이야기 하면서, 연실이는 차츰차츰 뒤채는 동안, 창수의 이불 아래로 절반만치 들어갔다. <그것>까지 실행이 되어야 연애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연실이었다.<sup>9)</sup>

김연실은 평안도 출신의 농대생 '이창수'를 만나자 “문학은 연애요 연애는 성교”라는 자신의 신념을 즉각 실행에 옮기고자 능동적으로 그를 유혹하고 있다. 이때에 그가 고향에 부인이 둔 유부남이란 점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사랑만 있으면 결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없으며, '제2부인'이 되어도 좋다는 당시 선각자 신여성들의 '신정조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숙원은 “김연실이 사이비 선각자인 것은 그녀의 어리석음에 기인하지만, 그녀의 공격적 에로스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구사한 파괴충동의 디스코스를 남성에게 되돌려준 성 역할 전환의 섹슈얼리티로 볼 수 있다.<sup>10)</sup>”라고 한다. 작품내의 논리에 의거한다면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김연실의 모델인 김명순을 무지한 사이비 선각자로 보거나 그녀가 성 역할 전환을 추구했던 것

9) <김연실전>, 『김동인 전집4』, 삼중당, 1976, 194-195쪽.

10) 안숙원, 앞의 글, 78쪽.

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김동인의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김연실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물에 자신의 개성을 강하게 투영하고 그들을 전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인형조종술'을 창작방법으로 삼은 작가이다.<sup>11)</sup> 그러니까 신여성 주인공들 역시 작가가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도록 실제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인은 <영혼-여자운동을 봄>(『창조』 9호, 1921.5)에서 “아무리 여자의 미력에 끌려서 그들을 본다 하여도, 그들에게 창조력이 있달 수는 없다. 따라서 영혼도 있다 할 수는 없다. 남자의 가장 무식한 자도 적으나마 창조력이라는 것이 있으며, 여자에게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다.”<sup>12)</sup>라고 했다. 그가 볼 때 여자란 창조력도 없고 따라서 영혼도 없는 존재인메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여성들이 사회운동을 한다고 무분별하게 덤비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인문 처럼 “한국 근대문학사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근대여성 즉 신여성에 대한 밀도 있는 이해와 애정을 보인 최초의 작가는 김동인일 것이다.”<sup>13)</sup>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은 김동인의 남녀차별의식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동인에게 자아의 근대적 각성은 남성 지식인에게만 해당되고, 여성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여성은 독립된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종속된 타자로만 존재한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이런 이중 척도 속에서 그는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하고자 한 신여성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 특히 가부장적 권위를 중시하는 남성들에 대한 도전장으로 보이는 그들의 신정조론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전근대적 남존여비 의식 속에서 신여성들의 정조관념에 대한 거부를 희화화하면서 방종한 여자로서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 2. 염상섭의 <제야>, <해바라기>: 타산적 허영

<제야>(『개벽』 20-24호, 1922.2-6)에서 신여성 주인공 '최정인'은 정조관념이 여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청춘남녀에게 대가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억압적인 규제장치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정조관념

11) 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1987, 62쪽.

12) <영혼-여자운동을 봄>, 『김동인전집6』, 삼중당, 1976, 407쪽.

13) 정인문, 『한일근대 비교문학연구』, 수서원, 1996, 157쪽.

가 여자에게 생활보장을 조건으로 강요하는 소유욕의 만족이거나, 교양인을 자처하는 자가 고상한 취미성을 만족시키고자 한 명분에 불과하다. 또한 최고의 도덕적인 표준에서 보면 정조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고 본다.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곳에만 진정한 생명의 발로가 있는 것이기에 연정이 일어날 때에 쌍방이 합의만 하면 욕구대로 실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소위 도덕이란 질곡은, 한 남자에게만 일생애를 노예적 봉사에 바쳐야만 한다는 조문을, 정조의 미니, 정조의 숭고니 하는 등 미의에 숨겨가지고, 섬약한 여성에게 군림한다. 더구나 파행적으로 여자에게만 엄혹하다.”<sup>14)</sup>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재용은 “이 작품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신여성의 허영심이다. 정인은 자기 스스로 정조를 사랑의 순일한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여러 남자와 맺었던 관계를 옹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역시 정조를 팔고 있는 것이다.”<sup>15)</sup>라고 지적한다. 최정인이 허영심으로 인한 정조관념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독일 유학을 예정하고 있는 기혼남 E씨와의 정식 결혼에 집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씨 집안의 반대로 좌절된 뒤에는 혼전 임신에 대한 타인의 비난을 피하고자 부친이 강요하는 다른 남성과 결혼하고 있다. 남성들이 생활보장을 미끼로 정조를 사고 있다고 비판하던 그녀 역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조를 팔거나 결혼이란 제도에 도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정인은 혼전 임신이 드러나서 쫓겨난 뒤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세상을 격렬하게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그녀를 용서한다는 남편의 편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을 결심하고 있다. 이때에 자신의 이전 행위를 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방탕한 부모의 타락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변명한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 가출한 어머니와 그녀를 유혹해 침으로 삼은 아버지의 불순한 피 때문에 그녀가 방종한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혜실의 지적처럼 “결국 작가는 유전상의 문제(실재로 유전되는가도 모르겠거니와)를 법률과 제도에 의한 신분과 동일시하고 있”<sup>16)</sup>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부모의 악이 자식

14) <제야>, 『염상섭전집 9』, 민음사, 1987, 74쪽.

15) 김재용, 『염상섭 문학과 여성의식』, 『작가연구 9』, 새미, 2000.4, 242-243쪽.

16) 최혜실, 앞의 글, 120쪽.

에게 세습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가문에 의해 그 사람의 능력과 역할이 결정된다고 여기는 전근대적 가문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염상섭 역시 신여성의 '신정조론'을 불신하면서 정조관념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명환도 "남의 아이를 배고 친정으로 쫓겨온 그녀는 허영에 들떠서 저지른 성의 행각을 돌아보며 후회와 절망에 싸이고 남편에 대한 충실을 혼자서 맹세한다. 이것은 결국 전통적 여성상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7)</sup>라고 하며, 그녀가 자아해방의 욕구로부터 급선회하여 자기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고발을 한다고 여긴다. 그녀가 개심을 통해 이전의 신정조론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염상섭도 자신은 자아의 해방을 통해 근대적 자각을 성취하고자 하면서도 여성의 정조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근대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바라기>(『동아일보』, 1923.7.18-8.26. 뒤에 '신혼기'로 개제)에서 동경음악학교를 졸업한 음악가인 최영희는 공학사이자 총독부 건설과에 근무하는 '이순택'과 결혼한다. 그녀가 여왕처럼 그를 지배할 수 있으며, 그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체가 그녀의 예술 활동에 최상의 후원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결혼관은 타인의 시선과 외부의 명성에만 집착하는 그녀의 허영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첩이란 말이 듣기 싫어서 이전에 공개 석상에서 비판하던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나, 신식 결혼을 못마땅해하는 시부모의 거부로 폐백을 드리지 못하자 거절당했다는 점을 창피하게 여기는 일도 허영심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영희가 "앞서의 부박한 신여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본과 서구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이를 통한 허영심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자기성찰을 지니고 있다."<sup>18)</sup>라고 하는 김재용의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최영희는 '양행이라는 허영심' 속에서 서구유학에 대한 선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가식적 위세를 중시하는 허영으로 인해 결혼 상대자를 타산적으로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규범과 모호하게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정명환, 「염상섭과 줄라」, 『염상섭』, 김윤식 편, 문학과지성사, 1977, 93쪽.

18) 김재용, 앞의 글, 246쪽.



염상섭은 “그 전에 쓴 『신혼기』(1923)는 여류화가요 문우이기도 한 L여사의 승낙을 받고, 모델로 한 작품이었다. 후일 L여사는 그것 때문에 히스테리에 걸릴뻔하였다고 넌지시 나를 나무래는 말도 들었거니와”<sup>19)</sup>라고 회고한다. <해바라기>는 염상섭의 첫 작품집 『전우화』의 표지를 그려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작품이다.<sup>20)</sup> 그런데도 주제적 여성으로서의 최영희의 면모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수지몽치에는 영희의 손으로 쓰지 않은 것이 한 장도 없다. 수삼이 하고 만난 뒤에 자기의 타는 가슴 끓는 열정을 역역히 그런 기념담이 이것이야 수삼이에게 향한 한조각 붉은 마음의 꽃다운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도 이 묵은 휴지 속에 박힌 글자밖에 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보아주던 그 사람--이것을 기념하여서 일생의 보배로 잘 간수하여 줄 그 사람--이 넓은 우주 가운데 꼭 한사람이든 그 사람이 없어진 오늘날에--그 글을 쓴 임자는 있어도 그 글을 볼 임자는 없는 오늘날에, 그 글은 그대로 허트러져 이사람 저사람의 손으로 돌아다니게 내버려두는 것은 영희의 영원한 고통이다. 그리하여 수삼이가 죽은 뒤에 그 관속에 넣지 않은 것을 섭섭히 생각하며 수삼의 아우의 손을 거처어서 찾아다가 둔 것이었다.

그러나 임자를 잃은 이 사랑의 폐허를 영희 자신이 자기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은 한층 더 비참한 일이요 가슴이 저린 일이었다. ……영희는 드디어 이 휴지 몽치의 임자를 찾아왔다. 이 사랑의 폐허를 인간의 폐허에 묻으려고--영원히 떠나신 님의 가슴에 품어두려고 영희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sup>21)</sup>

인용문에서 최영희는 이순택을 재촉하여 홍수삼의 무덤이 있는 전라도 H군으로 신혼여행을 와서 황폐한 그의 무덤을 정비하고 그에게 보낸 자신의 글들을 태워 무덤 속에 함께 넣고 있다.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홍수삼 대신에 이순택의 영혼을 그녀의 가슴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죽은 애인에 대한 그

19) <황보문단회상기>, 『염상섭전집12』, 민음사, 1987, 230쪽.

20) 나혜석은 결혼을 약속한 시인 최승구가 1916년 폐병으로 죽은 뒤 1920년 4월에 서양화가의 남편되기를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는 경도제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했다. 이상경, 「나혜석-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여성」, 『나혜석전집』, 이상경교열, 태학사, 2000, 20-21쪽.

21) <해바라기>, 『염상섭전집1』, 민음사, 1987, 171쪽.

녀의 애절한 마음이 크게 부각되고 있듯이, 오히려 그녀에게 남편이란 존재가 얼마나 허울에 지나지 않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윤식의 지적처럼 “영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랑, 서로의 영혼에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는 한갓 이해타산에 얽매인 사랑이란 과연 그것이 사랑축에 드는 것일까를 작가는 집도 없이 내세우고 있”<sup>22)</sup>다는 것이다.

당시의 선각자 신여성들은 육체의 순결보다 영혼의 순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결혼의 여부를 중시하지 않았다. 노자영은 엘렌케이 사상을 소개하면서 “어떠한 결혼이든지 거기 연애가 있으면 그것은 도덕이다. 가령 어떠한 법률상의 수속을 경한 결혼이라도 거기 연애가 없으면 그것은 부도덕이다.”<sup>23)</sup>라고 했다. 이에 의거한다면 최영희는 영혼의 순결을 잃은 부도덕한 여자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사랑 없이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죽은 애인을 마음에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염상섭은 <제야>의 최정인을 통해 육체적 정조 상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면, <해바라기>에서는 최영희의 정신적 정조 상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인이 신여성의 박약한 정조관념을 무지의 소산으로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면 염상섭은 그것을 허영심에 기인한 것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들 남성 작가들은 자신들과 문학 동인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던 모델로 삼은 신여성 작가들의 성도덕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은근히 전통적 정조관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지식인 남성들은 신여성들과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그들을 연애의 상대로 삼기도 하면서도 그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 자신은 인습적 결혼의 피해자로서 고통받고 있다고 여기며 신여성과의 연애를 통해 위안과 구원을 받고자 하면서도, 신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정조관념을 요구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 남성 작가들은 이중 척도에 의거해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2)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273쪽.

23) 노자영, 「여성운동의 제일인자 엘렌케이」, 『개벽』, 1921.5, 52쪽.

### Ⅲ. 정조관념 거부와 토대의 이탈

#### 1. 김명순의 <처녀의 가는 길>, <나는 사랑한다>: 이상적 연애

<처녀의 가는 길>(『신여자』, 1920.3)에서 신여성 주인공 '춘애'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한 정혼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연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연애는 남녀관계의 정신화를 강조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근대적 의식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이다.<sup>24)</sup> 그러하기에 대다수 신여성들은 현실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연애의 실천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연애란 원래 사랑의 정신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 초기의 신여성들에게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애가 인습적 정조관념의 거부로 이어지면서 육체적인 측면이 오히려 강화되었던 듯하다.<sup>25)</sup>

일생의 운명을 정하는 혼인에 돈만 많으면 제일인가? 그야 가난한 집 처녀가 부잣집 며느리로 돈에 팔려 가서 애써서 일하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효도겠지? 그렇지만 뜻아닌 곳에 시집을 가서 일생의 파란을 일으켜 연로하신 부모님께 끝없는 근심을 시키는 것이 효도일까요 전 번에 내게 온 춘애의 편지에

<언니, 나는 생각할수록 우리가 읽고 불쌍하다고 하던 '사랑의 무덤'의 설자와 같은 운명의 길을 밟아 가는 것 같아요. 언니가 사모하는 믿어운 청년을 밖에 두고 뜻아닌 곳에 출가하여 불쌍히 살다가 죽어버린 설자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제 2의 설자인 저에게도 동정하여 주실 줄 압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보면 춘애의 결심을 알 수 있지 않아요?<sup>26)</sup>

24) 정혜영, 「근대를 향한 시선-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호, 앞의 책, 39-40쪽.

25) 일본에서도 1911년에 창간된 『청담』을 중심으로 근대 여성의 '성의 자기 결정' 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졌다. 그리하여 1913년 초두 이래 '새로운 여성' 논쟁으로 들어가 「청담사 개칙」 제1조의 '여류문학의 발달을 꾀한다'를 '여자의 각성을 촉구한다'로 변경하는 등 커다란 전환을 경험하면서 좋은 삶은 '성의 자기결정'을 문자 그대로 전신체적인 섹슈얼리티의 문제로서 묻게 된다. 요네다 사요코, 「『청담』으로 본 '성의 자기결정'-성적인 권리의 역사적 의의에 부쳐-」, 김경원 역, 『여성문학연구』 제2호, 앞의 책, 329-336쪽.

26) <처녀의 가는 길>, 『김탄실』, 김상배 편, 솔비, 1981, 136-137쪽.

여기에서 친구 '마리아'의 발언을 통해 춘애의 절박한 처지와 입장이 전달되고 있다. 춘애의 적극적인 동조자인 마리아는 사랑 없이 결혼한 뒤에 일생의 파란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부모에게 불효가 될 수 있다면서 부당한 결혼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춘애는 결혼 전날 저녁에 가출하여 유망한 청년인 '기수'를 찾아가고 있다. 김복순의 지적처럼 그녀의 이런 선택은 '조건지워진 감금으로부터의 탈출과 진정한 자이를 추구하는 심리적 여행'<sup>27)</sup>을 나타낸다. 이처럼 결혼 직전의 처녀가 가출하여 애인을 찾아감으로써 정조관념의 거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사랑한다>(『동아일보』, 1926.8.17-9.3)의 신여성 주인공 '박영옥'은 춘애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인습적 정조관념을 거부하고 있다. 그녀는 집요하게 청혼한 '서병호'와 결혼한 뒤에도 '최종일'을 잊지 못하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자 이혼을 결심한다. 여기에서도 <처녀의 가는 길>의 마리아가 춘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친구 순희가 영옥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하며 도와준다. 이때 순희는 "애정 없는 부부생활은 매음이 아니냐"<sup>28)</sup>라며 남편과 헤어지라고 권유할 정도로 정조관념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전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일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동일한 사람의 분신인 셈이다.

또한 최종일도 영옥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왕녀보다 깨끗한 여자라며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 육체의 순결이 아니라 정신의 순결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남성 작가의 신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당시에 신여성의 신정조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이상적 애인은 실제 생활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남성이다.<sup>29)</sup> 김명순이 지향한 이러한 동지적 남녀관계는 현실적 토대에서 벗어난 '이상적 연애'라 할 수 있다.

27) 김복순, 「'지배와 해방'의 문학-김명순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60쪽.

28) <나는 사랑한다>, 『김탄실』, 앞의 책, 257쪽.

29) 김명순의 <돌아다볼 때>(『조선일보』, 1924.3.31-4.19)의 '송효순'과 '류소연', <모르는 사람같이>(『문예공론』, 1929.5)의 '순실'과 '창일' 역시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자신들의 사랑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인물들이다.

김명순은 <이상적 연애>(『조선문단』, 1925.7)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이상을 품고 결합하려는 친화한 상태 또 미급한 동경을 이상적 연애라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연애적인 추태를 다음의 5 가지로 제시한다. 이러한 연애의 추태를 통해 그녀가 생각한 이상적 연애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 그의 다른 사람과의 연애 고백을 무시하고 그 상대자를 욕되게 하며 연애한다고 음행을 꿈꾸는 것.
2. 술 취하여 그 집 문을 두드리며 그 상대자를 욕되게 하는 것, 난잡하게 사실 없는 일을 글로 써내는 것.
3. 너무 공상한 결과 연애라고 없는 욕적 관계를 사칭하여 상대자를 거짓 더럽히는 것.
4. 역시 공상의 결과로 타인 앞에서 그 동경하는 대상을 만나서 그를 누르려는 반 말로 남의 거짓 감정을 사는 것.
5. 어느 대상에게 연애를 고백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1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욕하는 것.

여기에는 연애에서 음행을 경계하며 진지한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듯이, 연애를 성의 개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실 아닌 일을 글로 쓰는 것과 욕적 관계를 사칭하여 상대방을 더럽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데, 당시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그녀에 대한 과장되거나 왜곡된 소문이 널리 유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동인은 <김연실전>에서 김명순을 모델로 삼은 김연실이 무지하여 정조 상실에 대해 아주 무지하고 빛나간 선구자적 열정으로 인해 성개방에 적극적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명순이 정조 상실에 그렇게 무지하거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탄실이와 주영이>(『조선일보』, 1924.6.14-7.15)에서 자전적 인물인 ‘탄실’은 정조 상실의 비난 속에서 약혼자 ‘태영세’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탄실은 얼마나 눈물 많은 처녀가 되었는지 일시는 정신 이상까지 생겼었다.”<sup>30)</sup>라고 한다. 또한 “태영세란 인물은 1925년 당시 탄실을 겁탈하여 자살을 기도하게 한 김모 중위와 동일하다.”<sup>31)</sup>라고 한다. 이렇게 그녀가 정조 상실의 충격 속에서 정신이상이 생기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한다면, <김연실

30) <탄실이와 주영이>, 『김탄실』, 앞의 책, 200쪽.

31) 최혜실, 앞의 글, 122쪽.

전>에서 그녀가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명순이 정조 상실에 무심하고, 맹목적 무지 속에서 인습적 정조 관념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녀가 정조 상실의 위기를 진지하게 극복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현실의 결핍을 보상할 이상을 더욱 강렬하게 추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상의 성취를 중시하였기에 자신의 작품에서 신여성의 적극적 동조자이자 협력자를 이상적 애인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명순의 작품은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남성에게 의존하여 여성 주체의 근대적 자각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 토대에서 벗어난 관념적 성취에 머물고 만 것이다.

## 2. 나혜석의 <경희>, <현숙>: 회계적 연애

<경희>(『여자계』 2호, 1918.3)에서 신여성 주인공 ‘경희’는 정조관념이 박약한 여자가 아니며, 규범과 통념의 범위 안에서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신여성이 과격한 규범 파괴자가 아니고 모범적인 우월한 인물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경희가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신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선전하고 있다. 이호숙의 지적처럼 “경희를 대변하는 어머니의 설정과 같은 이차적인 우회방식의 채택으로 이 장의 여권주의 전략은 예술적으로 성취”<sup>32)</sup>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에 신여성이 구여성에게 그러한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가가 일방적으로 신여성의 가치를 고양하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주변 구여성들의 편견에 맞서는 신여성의 힘든 싸움을 그렸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신여성의 근대적 자각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었을 듯하다.

경희도 여자다 더구나 조선 사회에서 살아온 여자다. 조선 가정의 인습에 파묻힌 여자다. 여자란 온갖온순해야만 쓴다는 사회의 면목이고 여자의 생명은 삼중지도라는 가정의 교육이다. 일어서려면 압박하려는 주위요, 움직이

32) 이호숙, 「위악적 자기 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근대편』,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95쪽.

면 사방에서 들어오는 욕이다. 다정하게, 손 붙잡고 충고주는 동무의 말은 열 사람 한 입같이 “편하게 전과 같이 살다가 죽읍시다” 함이다. 경희의 눈으로는 비단옷도 보고 경희의 입으로는 약식 전골도 먹었다. 아아 경희는 어느 길을 택하여야 당연한가? 어떻게 살아야만 좋은가? 마치 길가에 탄평으로 몸을 늘여 기어가던 뱀의 꼬지를 지팡이 끝으로 조금 건드리면 늘어졌던 몸이 바짝 오그라지며 눈방울이 대륙대륙하고 뽀죽한 혀를 독기 있게 자주 내미는 모양같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경희의 몸에 매달린 두 팔이며 늘어진 두 다리가 바짝 가슴 속으로 뱃속으로 오그라들어 온다.<sup>33)</sup>

그러므로 <경희>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용문에서처럼 아버지 '이철원'의 완고한 태도에 따른 경희의 심각한 고민일 것이다. 그녀에게 쉽게 설득되는 구여성들과 달리 아버지는 그녀의 일본 유학을 중단시키고 문벌 있는 김판사 집안과 강제로 혼약을 맺고자 한다. 이러한 가부장의 압력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 “경희의 몸에 매달린 두 팔이며 늘어진 두 다리가 바짝 가슴속으로 뱃속으로 오그라들어 온다.”라는 그녀의 내적 독백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경희는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라 여기기에 결국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인간다운 삶의 길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을 뿐 아직 인습적 정조 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1910년대 후반에 있어서는 인습적 결혼의 억압에 대한 저항만으로도 신여성의 벽찬 과제였기 때문일 것이다.<sup>34)</sup>

그러나 나혜석도 1930년대에 오면 기존 정조관념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선다. 그녀는 <우애 결혼·시험 결혼>(『삼천리』, 1930.5)에서 “시험이니까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편이나 절대적의 의무를 지지 않지요. 쉽게 말하면 이혼한다 셈치더라도 위자료니 정조 유린이니 하는 문제가 붙지 않는 것이 시험 결혼의 특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생활에 들면서>(『삼천리』, 1935.2)에서는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33) <경희>, 『나혜석전집』, 앞의 책, 98-99쪽.

34) 나혜석은 1910년대의 <이상적 부인>(『학지광』 3호, 1914.12), <잡감>(『학지광』 11호, 1917.3), <잡감(K언니에게 여함)>(『학지광』, 1917.7) 등의 산문에서도 여자도 학식을 갖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남자처럼 사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촉구하고 있다.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거와 같이 임의용지로 할 것이요,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독신여성의 정조론>(『삼천리』, 1935.10)에서는 “정조 관념을 지키기 위하여 신경쇠약에 들어 히스테리가 되는 것보다 돈을 주고 성욕을 풀고 명량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현대인의 사교상으로도 필요할 걸요.”라고 한다. 오늘날에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위적인 정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호숙은 “타산적이고 위선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제로서 선택한 것이 그녀의 파격적인 에로티즘론인 것이다.”<sup>35)</sup>라고 본다. 그러나 나혜석이 위악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자 전위적인 정조론을 내세웠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그녀는 1930년 김우영과의 이혼 이전에도 정조의 상실을 부도덕한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혼 고백장-청구씨에게->(『삼천리』, 1934.8-9)에서 “나는 결코 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즉 C를 사랑하려는 것은 아니었나이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고 믿었사 의다.”라고 정조와 사랑을 분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녀가 자신의 전위적인 입장을 내면화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란 것이다.

<현숙>(『삼천리』, 1936.12)의 주인공 ‘현숙’은 화가의 모델이자 카페의 여급로 일하는 신여성으로 계약결혼을 시도하고 있다. 그녀는 다방을 경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지원해주는 액수만큼 그 남자에게 서비스한다며 남자들에게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자신과 동거했던 기자로 하여금 그녀에게 순정을 바치는 젊은 청년 L이 보낸 러브레타에 대한 답장을 대신 쓰도록 한다. 이런 행동은 그녀가 남녀관계에서 순정을 부정하고 금전등록기 같은 계산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포옹하였다. 벌써 전부터 계기가 예약한 것 같이.

“네? 언제 내가 말한 회계의 입구가 이렇게 속히 우리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둘의 감정은 벌써 충분히 준비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감정 과다라도 관계치 않아요. L씨, 나는 인제 L씨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 대신 브라보를 불러드리지요. 브라보 브라보!”

35) 이호숙, 앞의 글, 113쪽.



그런데 L의 이후에는 무슨 큰 몽탕이가 걸려 있었다. 지금까지 알 수 없는 환희였다. 그는 지금 그것을 삼켜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은 오후 3시에 여기 와주세요! 언제든지 열쇠는 주인집에 맡겨둘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당분간 선생에게는 이야기 아니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둘은 반 년간 비밀 관계를 가져요. 반 년 후 신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sup>36)</sup>

인용문에서처럼 현숙은 순정한 청년 화가 L과 새로운 계약 관계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는 순수하면서 가난한 인물이기에 그녀와 금전등록기 같은 회계적 연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녀는 “연애의 입구는 회계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아. 참 나는 지금까지 감정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실패해 왔어.”라고 말하면서도 순정한 청년과 계약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숙의 이번 계약결혼 역시 성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그녀와 계약을 맺었던 K화백은 그녀의 주변에 자신 외에도 4, 5인의 남자가 있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반년 전에 동거했던 기자는 그녀가 L가 맺어져야 한다면서 떠나버리는 일을 그대로 보여줄 듯하기 때문이다.

이에 안숙원은 “결혼의 계약이란 매우 파격적이기도 하려니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질 토대가 필요한데 소설 「현숙」이 전통 결혼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결혼 모델로 계약결혼을 시도한 것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대 현실을 간과한 까닭에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sup>37)</sup>라고 한다. 이처럼 당시 조선에 계약결혼의 토대가 아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숙처럼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앞서 나갈 때에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억압은 구조적인 상황이기에 그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시적이고 개인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부당하다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지배 역시 부당하다. 그러므로 진지한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대등한 남녀관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혜석은 여성이 남성을 지배함으로써 여성 해방이 가능하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억압이 구조적으로

36) <현숙>, 『나혜석전집』, 앞의 책, 165쪽.

37) 안숙원, 앞의 글, 66쪽.

존재하기에 생활에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남성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약을 통해 그러한 지배관계의 역전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그녀의 오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석은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서 시종 계약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혼고백장>에서 그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1920년 김우영과 결혼할 때에는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시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하여 주시오”란 3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1930년 이혼할 때에도 “부 ○○○과 처 ○○○은 만 2개년 동안 재가 또는 재취를 알기로 하되 피차의 행동을 보아 복구할 수가 있기로 서약함.”이란 서약서를 쓰고 이혼에 합의했다. 또한 불륜 관계에서도 <여류화가 나혜석 씨 최린 씨 상대 제소>(『동아일보』, 1934.9.20)란 기사에 의하면, 최린이 자신의 장래를 일체 인수하기로 굳게 약속하였기에 그에게 자신의 정조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처럼 나혜석은 결혼, 이혼뿐만 아니라 불륜을 결행함에 있어서도 계약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혜석 역시 철저히 회계적 연애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명순의 소설에서는 신여성 주인공이 이상적 연애를 지향하면서 인습적 정조관념을 거부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남성에게 의존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적 자각을 실천함에 있어서 관념적 성취에 머물고 말았다. 하지만 나혜석의 소설에서 신여성 주인공은 합리적 타산을 중시하는 회계적 연애를 통해 고루한 정조관념에 저항하고 여성의 주체적 각성을 실천하고자 하면서도 우월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한다는 일방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실적 토대에 밀착된 대응력을 잃고 만 것이다.

#### IV. 맺음말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과 <김연실전>에서 신여성 주인공 강엘리자베트와 김연실은 무지로 인해 쉽게 정조를 상실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면, 염상섭의 <제야>와 <해바라기>에서 신여성 주인공 최정인과 최영희는 허영심

속에서 규범과 모호하게 타협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었다. 김동인의 소설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투영되어 신여성의 정조관념 거부가 맹목적 무지의 소산으로 직설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면, 염상섭의 소설에서는 중립적 시선 속에서도 신여성의 정조관념이 타산적 타협의 소산으로 우회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성 작가 자신들은 봉건적 결혼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신여성을 연애의 상대자로 삼으면서도, 신여성 역시 그들과의 연애를 통해 근대적 자각을 실천하고자 하며 그것이 정조관념의 거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들은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이중 척도로 인해 여성의 주체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명순의 <처녀의 가는 길>과 <나는 사랑한다>에서 신여성 주인공인 춘애와 영옥은 동지적 친구와 애인의 협력 속에서 인습적 정조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면, 나혜석의 <경희>와 <현숙>에서 경희와 현숙은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면서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해 저항하거나, 보다 전위적인 정조론을 실천하고 있었다.

김명순의 소설의 신여성 주인공이 인습적 정조관념을 거부하는 이상적 연애를 추구하면서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남성의 협력에 의한 의존적 성취에 머물고 있었다면, 나혜석의 소설의 신여성 주인공은 실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회계적 연애를 추구하면서도 우월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일방적인 성취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들은 현실적 토대에서 벗어남으로써 주체적 여성의 근대적 자각을 충실히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주제어: 신여성, 정조관념, 신정조론, 여성 해방, 이중 척도, 이상적 연애, 토대 이탈, 회계적 연애

## 참고문헌

- 김복순, 「'지배와 해방'의 문학-김명순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 김양선, 「'신여성' 드러내기의 두 가지 방식」,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 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1987.
- 김재용, 「염상섭 문학과 여성의식」, 『작가연구 9』, 새미, 2000.4.
- 안숙원,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 『여성문학연구』 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6.
- 양진오, 「<약한 자의 슬픔>의 다시 읽기」, 『문학사와 비평』 8호, 문학사와비평학회, 2001.2.
- 이상경, 「나혜석-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여성」, 『나혜석전집』, 이상경교열, 태학사, 2000.
- 이호숙, 「위악적 자기 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근대편』,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 전미정, 「나혜석의 삶과 여성의식」,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 석사논문, 1999.
- 정혜영, 「근대를 향한 시선-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12.
- 최혜실, 「신여성의 고백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12.
- 로버타 해밀턴, 『여성해방논쟁』, 최민지 역, 풀빛, 1982.

<Abstract>

## The idea on chastity of New Women represented in Recent Novels

Park, Jong-Hong

The 'New Women' in Kim Dong-In's novels lost their chastity easily due to their ignorance of and weak attitude towards chastity. On the other hand, those in Yeom Sang-Sub's novels denied the virtue of chastity or had a false concept of chastity, which was due to their vanity. Looking down upon women, Kim Dong-In distorted the idea on chastity of the 'new women' criticizing directly. Taking a neutral attitude, Yeom Sang-Sub took an indirect way criticizing it.

The 'new women' of Kim Meong-Sun's novels put love into action and resisted the norm of the day actively by deserting their family or divorcing. Those in Rha Hye-Suk's novels tried to enlighten the general public by exemplary conduct or contract marriage. While Kim Meong-sun was in pursuit of unrealistic and idealistic love, Rha Hye-Suk respected tangible profit and pursued planned love, showing that the new idea on chastity of the 'new women' was of rather moral nature.

Key words: New Women, The virtue of chastity, The emancipation of women, Double measure, Secession from bases, Idealistic love, Planned love